

괴롭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전문 번역가들이 말하는 '나의 번역관'

일상이자 몸의 리듬

김난주 |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의 옮김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다. 밥을 지을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아 이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나 번쩍거리는 모니터는 늘 내 뒤쪽수를 지켜보고 있다.

일을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을 때면, 가만히 내 몸이 작품에 다가가기를 기다린다. 등장 인물들의 손짓발짓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그들이 놓여 있는 풍경이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내 몸이 작품에 젖어들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손이 멈추면, 다시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잡도록 기다린다.

내게 번역은 일상이며, 몸의 리듬이다. 굳이 집요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있다면 우리말로 환치했을 때 언어의 리듬, 그리고 조화다.

원작과 독자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김현철 | 《페르키오 사르니엔토(전2권)》의 옮김

지금까지 몇 권의 번역서를 내면서 단 한번도 칭찬을 받지 못했다. 제대로 원문을 이해하지 못해 오역이 나는 수도 있다. 이 경우 욕먹어 마땅하다. 장황한 글을 글자 그대로 장황하게 옮겨 독자의 분노를 사기도 하고, 원작자의 스타일을 살린다고 멋을 부리다 편찬을 듣기도 하고, 원작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 맛을 버렸다는 욕도 먹는다. 고유명사 번역도 만만치 않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를 써야 할지, 본토박이 말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해서 나는 번역이 정말 무섭다.

번역자의 가장 큰 덕목은 성실성

유소영 | 《구룡배의 전설》의 옮김

모든 직업이 그렇듯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어떤 직업에 대한 성격이나 고충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은 다른 이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함이자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의 표현일 수 있다. 번역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나는 번역가로서 가장 큰 덕목은 '성실성'이라고 생각한다. 성실성은 원작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자, 자신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공부며, 출판사, 독자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번역가 이전에 주부이자 대학강사로서 하루 종일 일에 치이는 30대 여성에게 앞서 말한 성실성을 확보하는 일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번역이 또 하나의 창작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 또한 성실성일 것이니, 어찌할 것인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두 암초 사이의 아슬아슬한 항해

이세욱 | 《개미(전5권)》의 옮김

번역이란? 번역과 노예 근성의 두 암초 사이로 나아가는 아슬아슬한 항해. 원작자와 모국어 독자의 어느 쪽도 배신할 수 없는 삼각관계 위의 곡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가 아니라,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한 백과사전에서 다른 백과사전으로 옮겨가기.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텍스트간의 관련을 간파하는 능력, 심리학적 능력, 서술 능력을 필요로 하는 행위.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원작자의 분신을 상정하면서 원문의 깊은 의미, 심리적 의미, 문화적 의미를 찾아내는 주관적인 해석 작업. 아킬레스와 거북의 역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게임. 창작과 쉽게 혼동되지만, 결코 창작이 될 수 없는 고도의 기술. 원작을 짧게 만들지만 원작보다 빨리 죽기 때문에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다른 것으로 대체돼야 하는 덧없는 운명.

눈발에 첫 발자국을 찍는 느낌

임지현 | 《브리짓 존스의 애인》의 옮김

한 권의 책을 번역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을 읽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독자들이 내 손을 거쳐 우리말로 바뀐 책으로만 작품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장을 우리말로 고치는 것뿐 아니라 원작의 분위기, 작가의 문체 역시 완벽하게 전하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항상 내 문장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직역하고픈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즉 거의 한 페이지에 이르는 길고 유려한 문장을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어야 할 때, 형용사와 부사가 화려하게 난무하는 글을 정돈해줘야 할 때 괴롭기 짝이 없지만 결국은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번역은 힘든 작업이다. 그러나 막 도착한 딱딱딱한 원작을 펼 때, 마치 눈발에 첫 발자국을 찍는 기분이 되는 것은 내가 아직 이 일에 애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의 몸체를 바꿀 궁리

장혜경 | 《20세기 여인들》의 옮김

'한국적 민주주의'를 외치던 시절, 정치경제 선생님은 그 난해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포 자락에 베레모를 쓰고 구두 신은 신사를 비유로 들었다. 그런 어정쩡한 패션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이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상한 민주주의를 외워야 했던 어두운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퓨전 요리를 즐기는 시대에 산다. 하지만 아직도 내 번역 원고가 고운 한복 밑으로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를 짝 내밀며 레이스 속옷 자락을 펄럭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많다. 독자들이 한글은 한 글이 되 한글이 아닌 듯한 꺼림칙한 기분에 휩싸일지도 모르므로.

아무리 퓨전이 좋아도 소화할 위치에 맞는 요리가 제일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번역을 할 때마다 외국숙담과 딱 맞아떨어지는 우리 숙담, 우리말의 장점인 아름다운 의성어나 의태어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곤 한다.